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1년 3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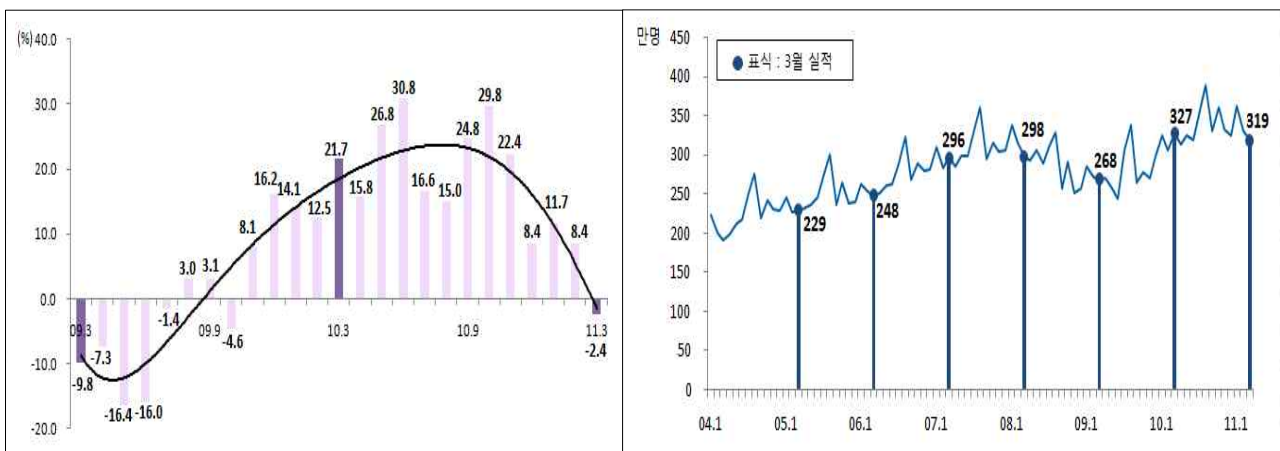
2011년 3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 ❖ 뉴질랜드 지진(2.22)에 이은 일본 동북부 대형지진(3.11)으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2.4%, -1.8% 감소. 항공화물은 IT부품의 출하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0.2% 증가

* 2011년 3월 자료부터 노선별 통계자료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여객

2011년 3월 국제여객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형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방사능 우려 등으로 인한 여행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한 3,189,072명을 달성하며 2009년 말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1>은 국제여객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과 실적 추이를 나타내어 준 그래프이다.



<그림 1>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아래 <표 1>은 공항별 국제선 운항 및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전국 공항의 국제여객실적은 전년대비 평균 -2.4% 감소하였다. 공항 전체적으로 운항은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여객실적은 김해·대구·청주공항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인천·김포·제주·무안 공항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 중국 및 일본노선의 수요가 전년대비 약 -24% 감소함으로써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제주공항의 노선국가별 실적을 상세히 살펴보면 대만이 전년대비 -3.4% 감소, 일본이 전년대비 -29.2%, 중국이 전년대비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3월	'11년 3월	전년대비	'10년 3월	'11년 3월	전년대비
인 천	16,899	18,949	12.1%	2,697,561	2,612,071	-3.2%
김 포	1,238	1,482	19.7%	267,798	264,120	-1.4%
김 해	1,697	2,141	26.2%	240,379	247,893	3.1%
제 주	330	350	6.1%	47,317	36,078	-23.8%
대 구	65	82	26.2%	7,661	9,486	23.8%
청 주	10	136	1,260.0%	1,373	15,003	992.7%
무 안	51	53	3.9%	6,432	4,421	-31.3%

<표 2>는 노선별 국제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일본·유럽을 제외한 노선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주, 대양주노선은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일본 지진으로 나리타/하네다 공항 이용객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환승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선별 여객실적

(단위 : 명)

노 선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 타
'10년 3월	992,939	952,735	695,001	287,935	199,057	98,678	42,176
'11년 3월	823,322	1,016,043	704,939	304,079	195,114	103,865	41,710
전년대비	-17.1%	6.6%	1.4%	5.6%	-2.0%	5.3%	-1.1%

〈표 3〉은 노선별 국적사 및 저비용항공사(LCC)의 분담율을 나타내어준 표이다. 2011년 3월 국적사의 비율은 전 노선 평균 약 66% 이상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의 분담율은 3.2%로 전년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대양주노선에서 대형국적사의 운항 및 여객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와 외항사의 운항 및 여객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대양주노선에서 전년대비 7.5%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일본·동남아노선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환승여객¹⁾은 일본지진의 영향으로 환승수요가 증가함으로써 530,552명을 달성, 최근 5년간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김포-하네다 구간 및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증편 영향으로 감소추세였던 일본 환승여객은 여객실적이 감소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승여객은 전월대비 48.5% 증가, 전년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률은 전년대비 1.8%p 증가한 20.2%를 기록하며 2009년 9월 22% 이후 최대 환승률 수치를 기록하였다.

1) 환승여객 월별추이 : 47만명('11.1) → 40만명('11.2) → 53만명('11.3)

환승률 월별추이 : 15.7%('11.1) → 14.9%('11.2) → 20.2%('11.3)

〈표 3〉 노선별 국적사 및 저비용항공사 분담율

(경유지포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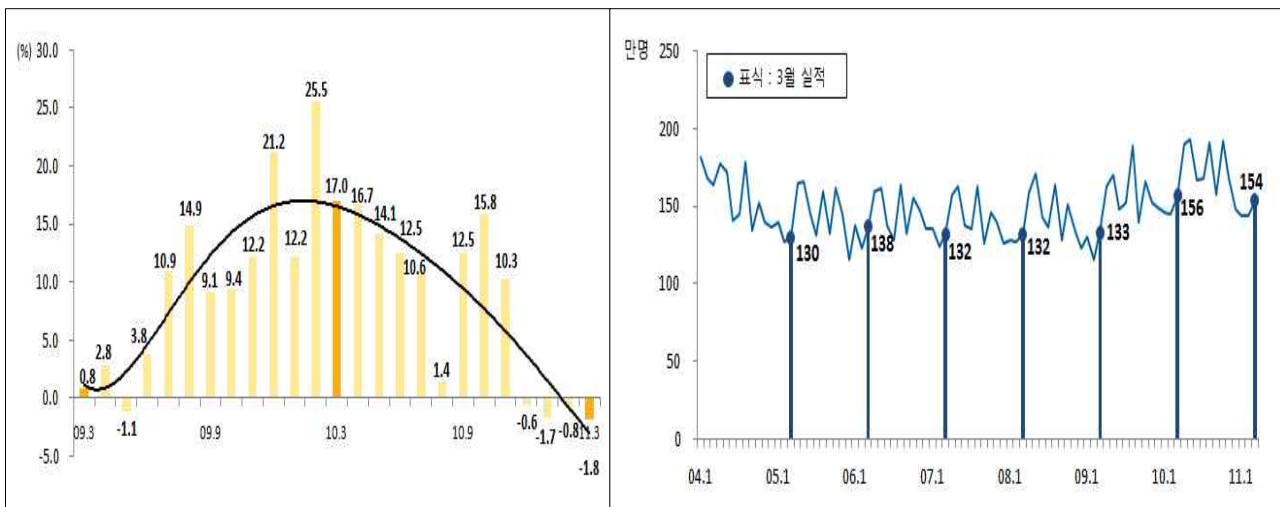
노선별 항공사 분담율		운 항			여 객		
		'10년 3월	'11년 3월	증 감	'10년 3월	'11년 3월	증 감
일 본	국적사	68.2	68.5	0.3	73.3	74.3	0.9
	외항사	28.2	24.7	-3.5	23.9	20.4	-3.5
	LCC	3.6	6.8	3.1	2.7	5.3	2.6
중 국	국적사	49.6	50.3	0.7	56.9	57.1	0.3
	외항사	50.4	49.3	-1.1	43.1	42.4	-0.7
	LCC	0.0	0.4	0.4	0.0	0.4	0.4
동남아	국적사	57.2	50.0	-7.1	58.7	51.8	-6.9
	외항사	41.0	44.2	3.2	39.6	43.7	4.1
	LCC	1.8	5.8	4.0	1.7	4.5	2.8
미 주	국적사	59.7	59.5	-0.2	89.6	84.9	-4.7
	외항사	40.3	40.5	0.2	10.4	15.1	4.7
	LCC	0.0	0.0	0.0	0.0	0.0	0.0
유 럽	국적사	63.5	60.1	-3.4	62.7	59.5	-3.2
	외항사	36.5	39.9	3.4	37.3	40.5	3.2
	LCC	0.0	0.0	0.0	0.0	0.0	0.0
대양주	국적사	95.7	79.5	-16.2	97.6	84.1	-13.5
	외항사	4.3	11.0	6.8	2.4	8.4	6.0
	LCC	0.0	9.5	9.5	0.0	7.5	7.5
기 타	국적사	33.3	25.8	-7.5	37.7	22.1	-15.6
	외항사	66.7	74.2	7.5	62.3	77.9	15.6
	LCC	0.0	0.0	0.0	0.0	0.0	0.0

국내여객

국내여객은 전체 운항이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8% 감소한 1,535,898명을 달성하며, 지난 12월부터 전년대비 (-) 증감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X 2단계 개통, 일본지진으로 인한 여행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지방공항의 실적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KTX 2단계 개통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울산·포항공항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김해공항은 그 영향을 미미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공항의 경우 운항 및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20.6%, -40.4% 감소하였고, 포항공항은 운항이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대(5개 LCC 모두 운항) 등의 영향으로 여객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15.0%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내선 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지난 1월과 2월 기상악화 등으로 다소 감소추이를 보였던 제주노선의 실적 증가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주공항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상대적으로 대형국적사의 운항 및 국내여객 실적이 전년대비 각각 -0.1%, -8.6% 감소한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및 국내여객 실적이 전년대비 각각 18.2%, 20.3%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제주공항의 저비용항공사 분담율은 전년대비 8%p 증가한 47.6%로 대형국적사와의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대 및 실적 증가가 제주노선의 실적증가를 견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내여객수송량은 626,240명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하였으며 저비용항공사 분담율 또한 40.8%로 전년대비 7.0%p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표 4〉 주요 공항별 국내선 운항 및 여객실적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3월	'11년 3월	전년대비	'10년 3월	'11년 3월	전년대비
김 포	4,375	4,541	3.8%	545,893	531,648	-2.6%
김 해	1,698	1,659	-2.3%	195,269	199,428	2.1%
제 주	4,083	4,400	7.8%	559,693	575,681	2.9%
대 구	310	310	0.0%	41,093	39,596	-3.6%
광 주	453	454	0.2%	56,121	52,005	-7.3%
청 주	398	319	-19.8%	48,453	46,461	-4.1%
울 산	379	301	-20.6%	42,974	25,610	-40.4%
사 천	98	77	-21.4%	6,138	4,667	-24.0%
포 향	149	157	5.4%	12,642	10,745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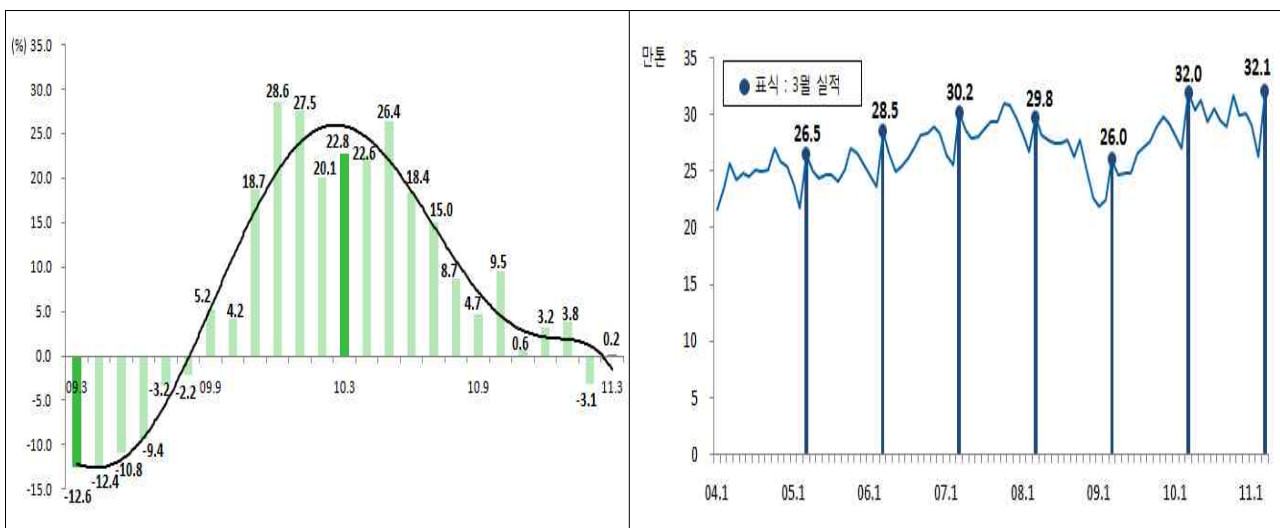
〈표 5〉 제주공항 대형국적사 및 저비용항공사 실적

구 분	운 항			여 객			분담율	
	'10년 3월	'11년 3월	전년대비	'10년 3월	'11년 3월	전년대비	'10년 3월	'11년 3월
대형국적사	2,329	2,327	-0.1%	338,273	309,300	-8.6%	60.4%	55.3%
LCC	1,754	2,073	18.2%	221,420	266,381	20.3%	39.6%	47.6%

항공화물

3월 항공화물은 리비아사태, 일본 지진 등의 대외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2% 증가, 전월대비 22.1%한 320,591톤을 달성하였다. 이는 항공화물 수요성장세가 경기침체기 이후 2010년 상반기 이례적으로 급반등 추세를 보이던 2010년 4/4분기부터 지난 2월까지 장기간의 설 연휴, IT부품의 출하 부진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3월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인 것이었다. 2/4분기에는 항공화물 실적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3월이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화물실적 추이를 국제화물과 국내화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제화물은 항공운송의존도가 높은 IT 관련 제품의 수출입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0.6% 감소, 전월대비 21.4% 증가한 293,312톤을 달성하였다. 이는 2010년 3월과 10월에 뒤이은 역대 3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3〉 항공화물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국내화물의 경우 27,279톤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 전월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내화물 수송량에서 많은 비중을 점유²⁾하는 제주·김포·김해공항의 실적변화를 살펴보면 제주공항은 전년대비 15.9% 증가, 김포공항은 전년대비 -0.8% 감소, 김해공항은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다.

〈표 6〉은 전국공항의 노선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중국·대양주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3월 11일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함으로써 지역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던 반면 대양주는 전년대비 12.8% 증가함으로써 지역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일본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전년대비 3.9% 증가한 107,373톤을 달성하였다.

〈표 6〉 노선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노 선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3월	41,849	76,241	56,967	63,391	49,501	4,124	2,983
'11년 3월	39,903	77,696	55,266	62,408	49,416	4,653	3,970
전년대비	-4.6%	1.9%	-3.0%	-1.5%	-0.2%	12.8%	33.1%

2) 제주공항: 2011년 3월 기준 61.6% 점유
 김포공항: 2011년 3월 기준 19.5% 점유
 김해공항: 2011년 3월 기준 10.2% 점유

- ❖ (통계 유의사항) 2011년 3월 항공운송동향분석부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의 노선별 실적이 전체 공항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분석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 자료만 비교분석하였으므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선별 지역 구분이 상이하오니 아래 변경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존	현재
홍콩, 마카오	중국	동남아
괌, 호놀룰루	미주	대양주
사이판	미주	동남아
인도, 몽고	기타	동남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타	유럽